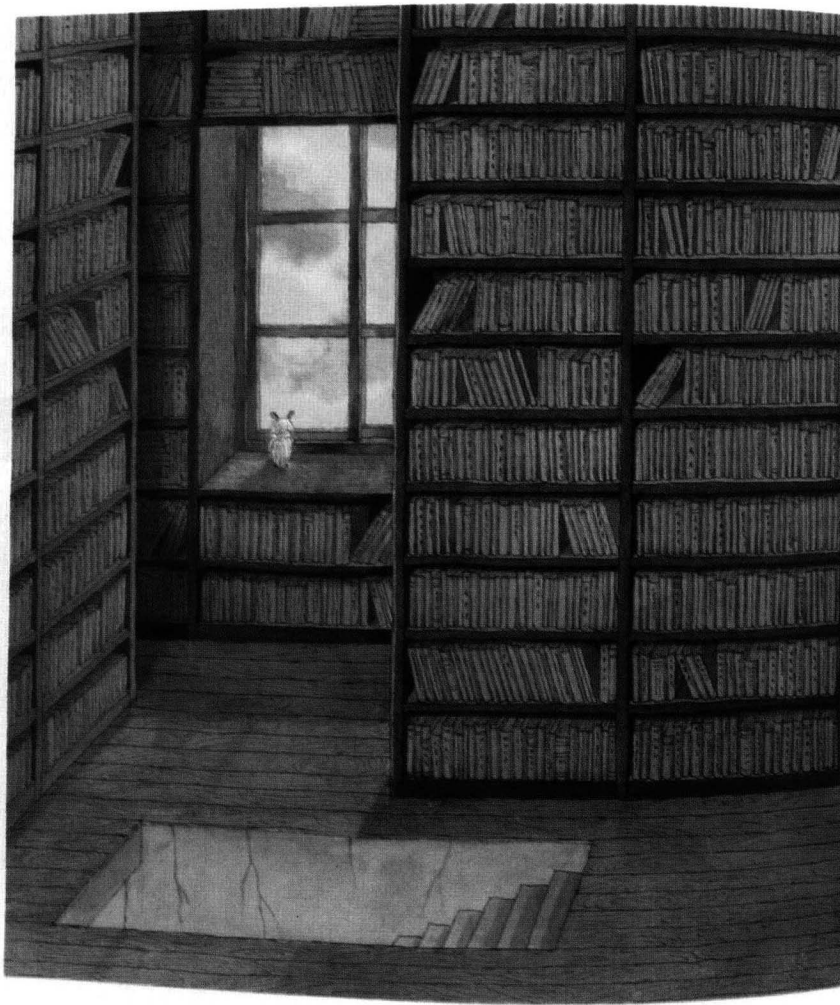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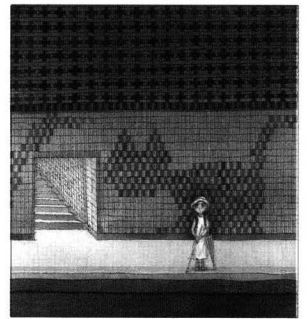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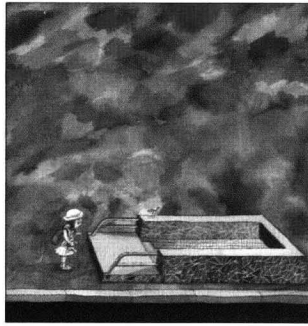


“이 글을 시인에게 바칩니다.”

삶에 대해 따뜻하고 독특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지미의 판타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지하철 안과 밖에서 갖가지 에피소드를 겪는 15세 장님 소녀의 행복한 판타지를 그린 작품이다. 대만의 '상페'로 불리는 그림책 전문작가 지미는 대만 문화 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1999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라는 도시의 사랑이 이야기를 출간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6년 혈액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해야 했던 지미는 병이 고독, 슬픔, 좌절과 함께 머물다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감수성을 발견했고 그러한 감수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해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타이베이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시인에게 바치고 밝히고 있다.

혹시 서를 위해 저너노움을 볼 수 있는 장가에서 시 한 수 읽어주시길 문은 안 바칩지요?





《지하철》지미 글·그림 | 샘터 | 128쪽 | 값 12,000원